

3. 마드리드 첫날(11.4)

제목 1: 카페에서 아침 식사

아침 7시 조금 넘은 시간 호텔 모퉁이에 있는 카페테리아 카사 루치아노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아내가 기다리던 마드리드에서의 아침 식사이다. 카페 콘 레체를 포함한 아침 식사 세트 메뉴가 6 가지 있다. 모두 먹음직하다.

아내는 베이컨, 에그 프라이, 감자 튀김 세트를 나는 크로아상 햄 앤 치즈 세트를 주문했다. 매우 만족스러운 먹는다. 좋은 일이다.

제목 2: 프라도 미술관에서 고양이를 만나다

관광철은 아니어서 그런지 프라도 미술관 아침 시간은 그렇게 붐비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방문객을 먼저 입장시켜 기다려야만 했다.

그러나 청량한 공기와 햇살 그리고 맑은 가을 하늘로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잔잔하고 평온 하였다.



프라도 미술관의 모든 걸작 그림을 깊게 다 보려면 그림에 대한 그만한 지식과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 볼 수는 없고 고야, 루벤스, 벨라스케스 등 세 화가의 그림만 봐도 본전은 한다고 한다.

19년 전 마드리드에서 살 때는 프라도 미술관 그림에 관심도 없었던 아내가 이번에는 열심히 보고 듣는다. 이제 다시 올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예감 때문일까?

하여튼 이 세 화가의 그림이 있는 전시관을 약도를 보며 이리 저리 찾아다니는데 불평 한마디 없었다. 매우 신기한 일이다.



커피 귀신인 아내가 어떻게 박물관 안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외면할까?

기념품 가게에서 가족에게 줄 기념품 하나 사볼까 하고 보고있는 나에게 여행 중 짐이 되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커피나 마시자고 재촉한다.

내가 보지 못했던 카페테리아를 빨리도 포착했다. 아내는 더블 엑스프레소 나는 카페 콘 레체를 시켜 비즈코초를 곁들여 맛있게 먹었다.



잘 정리된 프라도 미술관 주위 건물과 만난 가을은 가을의 청량한 햇살과 함께 어우러져 아름답다.



그러나 파세오 데 프라도 거리에서 만난 가을 풍경은 마드리드의 고색이 짙은 건물을 배경으로 쓸쓸함이 배어있다. 프라도 미술관 주변과 파세오 데 프라도 거리에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긴다.



제목 3: 플라자 마을의 한적함

프라도 미술관에서 플라자 마을 까지 걸어간다. 바쁠 것도 없고 가을 거리도 구경할 겸 많이 걷기로 했다. 아토차 거리를 한참 올라가다가 오른 쪽으로 굽어져 가는 것으로 애플 맵이 가리킨다. 조금 헤맸지만 어려움 없이 도착했다.





플라자 마요르의 왕정 시절의 중심 광장이었다. 모든 국가 행사를 이 곳에서 했다. 공개적인 사형집행도 여기서 했다고 한다. 마드리드에 관광 오면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곳이다. 광장은 네모 형태로 각 변마다 장중한 건물이 서있다. 광장으로 연결된 길이 10 개 즉 출입구가 10 개란 뜻인데 확인은 해 보지 못했다. 마드리드 구시가의 중심이며 필수 관광 사이트이다.



그런데 한적하다.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성수기에는 관광객으로 꽉 메웠던 카페도 한산하다. 관광 성수기가 아닌데다가 오늘이 월요일이어서 그럴까? 알 수 없다. 내가 경험한 플라자 마을은 항상 사람들이 넘쳤다.



헤밍웨이가 자주 방문해 식사 했다는 그 유명한 엘 보틴 식당 입구에도 아무도 없다. 월요일은 휴일인가? 꼭 이 년 전 10월 말 이 곳은 여행자들이 길게 줄 서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웬 일인가? 아마도 식당 안은 만석일 것이다.



제목 4: 마드리드 전통음식 코시도를 찾아서

출발 며칠 전 한 방송의 음식 테마 기행 프로그램에서 코시도 라는 마드리드 전통음식을 소개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 식당이 타베르나 라 블라라(TABERNA LA BOLA) 것을 확인하고 오늘 점심을 온라인으로 예약했다. 예약 확인 메일도 받았다.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플라자 마을에서 걸어 찾아 가는데 만만치가 않다. 중간에 방향을 놓치니 혼란스러워졌다. 현 위치에서 800미터 반경 인데도 찾지 못하겠다. 구글 맵을 사용했으나 잘 안내를 하지 못한다. 다시 애플 맵을 작동시켜 겨우 찾아냈다. 라 볼라 이름은 식당이 있는 거리 이름을 딴 것 같다. 거리 이름이 까에 라 볼라(CALLE LA BOLA) 이다. 붉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행객으로 만원이다. 예약된 창가 자리를 잡았다.



마드리드에서 거주할 때 이 식당을 알지 못했다. 엘 보틴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오래된 식당 인데도 말이다. 토속음식이다. 돼지 살코기, 비계, 초리조, 감자, 가르반조 라고 불리는 콩 등을 넘어 항아리에 오래 끓인 뒤 내온 음식이다. 국물은 전식으로 먹는다. 그리고 난 후 남은 건더기를 접시에 부어 본식으로 먹는다. 토속 음식이 그러하듯 보기에는 그리 수려하지 못하지만 잘 먹었다.

국왕 내외도 방문한 것 같다. 서명이 있는 국왕 사진이 걸려 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알려진 식당인 것만은 틀림없다.

제목 5: 엘 코르테 잉글레스 백화점의 중국 여행객들

엘 코르테 잉글레스는 스페인의 최대 백화점 체인이다. 또 세계 3위의 크기를 가진 백화점이라고 한다. 글로벌 유통 체인이다. 마드리드에서는 카스테야노 대로에 있는 백화점이 가장 크다.

마드리드에서 거주할 때 종종 찾아가 시간을 보냈던 곳이다. 아내가 한 번 가자고 한다. 아내의 속셈은 한국에서 가격이 만만치 않은 캠퍼 구두를 한 켤레 사는 것이다.

그런데 거짓말 조금 보태면 고객이 모두 중국 관광객이다. 화장품, 의류, 귀금속, 신발 코너 모두 중국말로 소란스럽다. 손에 쇼핑백들을 들고 무리를 지어 분주하게 오간다. 중국인 판매원들도 많이 보인다. 우리가 지나가니 중국말로 인사한다.

아내는 캠퍼 구두 매장을 한 번 둘러본 뒤 구매 의사 표시 없이 나와 버린다. 우선 중국인들이 캠퍼 구두 매장에서 소란을 떠난다. 중국인 판매원도 우리에게 중국말로 뭐라고 한다.

그리고 가격을 보니 장난이 아니다. 스페인 구두 가격이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다른 스페인 유명 브랜드 구두 가격과 비교해 봤더니 두 배 차이가 난다. 스페인에서 고급 구두 브랜드는 얀코, 로투세, 에미디오 투치 등이다. 그런데 이들 브랜드 보다 가격이 높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스페인 사람들이 과연 이 가격을 주고 캠퍼 구두를 사 신을까?

아마 중국인들이 가격을 올려놓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중국인들이 몰려있는 구두 가게는 캠퍼 구두 매장 밖에 없었다.

백화점 슈퍼에 들러 망고 몇 개 사서 호텔로 돌아왔다.
